

“강정마을, 제주도·도의회와 함께 상생”

✎ 강동우 기자 | ㉠ 승인 2021.05.31

제주도·제주도의회, 지난날의 과오 사과 마을 공동체 회복 위해 노력
상생협력 협약 체결 등 마을주민 아픔 치유·보상 등 적극 지원 약속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오전 10시 서귀포시 강정 크루즈 터미널에서 강정마을의 완전한 갈등 해결을 위한 '제주도-도의회-강정마을 상생 화합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강정마을에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으로 인한 지난날의 과오를 사과하고 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행정과 강정마을 간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공동체 회복의 전환점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오전 10시 서귀포시 강정 크루즈 터미널에서 강정마을의 완전한 갈등 해결을 위한 '제주도-도의회-강정마을 상생 화합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

이번 선언식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과정에 대한 반성 및 상생 화합 선언을 통해 강정마을의 완전한 갈등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희룡 지사는 이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입지 선정과 건설 과정에서 제주도정의 지난 과오에 대한 사과와 향후 강정마을과의 상생협력 협약 체결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입지 선정과 건설 과정에서 큰 상처를 입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제주도정이 불공정하게 개입했고, 주민의견 수렴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한 일”이라며 제주도의 잘못을 인정했다.

원희룡 지사는 특히 “오늘 강정마을과 도의회, 제주도정이 함께하는 상생선언은 갈등 해소의 끝이 아니라,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시작”이라며 “마을회와 상생협약을 맺어 마을주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보상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좌남수 의장도 “지난 2009년 12월 제주도의회 본회의에서 제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사업 관련 동의안이 처리됐기 때문에 이와 연계된 여러 사안에 대해 도의회는 그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도의회 의장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좌남수 의장은 “이제 더 이상 서로 등을 돌리며 사는 과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마을의 발전과 미래세대를 위해 함께 살아가야 할 주민공동체를 회복시키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선언식이 서로의 아픔을 씻고 다시 평화로운 강정 마을로 회복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강정마을 강희봉 회장은 이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사과를 받아들이고 마을 공동체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강희봉 회장은 “더 없이 평화로웠던 강정마을에 2007년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해군기지 건설이 추진되면서 강정마을 공동체는 분열됐다”며 “삶의 터전을 지키고자 했던 많은 주민들은 범법자가 됐고, 이로 인한 고통은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정마을의 생존권을 위해 해군기지 건설 반대투쟁을 했던 아픈 역사는 지금을 사는 우리도 기억해야 되고, 다음 세대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라며 “그러나 뿌리 깊게 내린 갈등과 반목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마음으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사과를 받고 용서함으로써 미래로 나아가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식전 행사로 아메리카 원주민과 영국 정착민들 사이의 갈등 이야기를 그린 애니메이션 ‘포카혼타스’ 줄거리 영상이 상영되며, 본 행사 상생 화합 퍼포먼스로 ▲샌드아트 스토리 및 어린이 합창 ▲캘리그래피 퍼포먼스 및 낙관식 ▲강정마을-도의회-제주도 상생화합 선언 ▲참석 내빈 및 마을 주민 등 희망의 메시지 전달 등이 진행됐다

 강동우 기자 kdw2312@naver.com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